서 한 문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수 윤승근입니다.

극심했던 가뭄이 지난 6.24일부터 내린 단비로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므로써 우리들의 마음마저 포근해 졌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국내 메르스 전염병등 사회적 혼란시기와 더불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3중고 4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으나,

귀 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장비 및 물자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가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생활 또한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귀 기관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었다고 생각하며, 서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또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 우리 고성군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마음을 다져서 군민모두가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행복고성』을 위해 더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가뭄대책에 따른 장비 및 물자지원에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7월을 맞아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3일

고성군수 윤승근